

원전 소재 지자체장들 “원안위 참여시켜달라”

28일 영광 등 5개 시·군협의회

“원전 허가·해제 권한

지역민 대표에도 줘야”

‘신고리 공론화위’ 연계 주목

정부가 ‘탈핵’ 정책을 본격화하는 것과 맞물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 등으로만 구성, 운영돼온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자치단체장을 참여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광군은 울주군, 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등 원전이 있는 지자체와 함께 28일 대구에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장들은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원전이 있는 지역 기초단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은 최근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출범과 연계돼 주목

받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는 그동안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왔던 원전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려는 취지로 출범했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우리나라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 원전 시설 안전규제, 방사선 안전규제, 국가 방사능 방재총괄, 핵비확산·핵안보 이행 등을 담당했다.

원전 건설과 운영을 허가하고 기간이 만료하면 해제를 승인하는 등 원전 건설부터 해제까지 모든 과정을 사실상 규제하고 감시한다.

현재 원안위 위원들은 교수, 원전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원전이 건설·운영되는 지역 주민 대표가 빠져 있는 문제를 이들 자치단체장이 제기해왔다.

또 원전 주변 모든 가구에 안내방송 전파장비 설치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빨리 알고 대피할 수 있는 방안과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인터넷 사용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 발족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경주시와 기장군,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의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씩 회장을 순번제로 맡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화단에 쓰레기 버리진 않겠죠?”

광주환경연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나서

지난 21일 쓰레기가 쌓여있던 광주 시 서구 농성1동 2개 지역에 커다란 화단 2개가 놓였다.

화분이 놓인 곳은 그동안 인근상인과 행인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지역이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의 하나로 광주시 서구 농성1동 주민들과 ‘자원순환 마을만들기’사업(사진)을 진행한다.

환경부가 후원하고 (재)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최하는 이 사업은 마을 쓰레기배출 현황조사, 불법투기지점 환

경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농성1동 주민들은 금사철, 백일홍, 허브 등을 직접 만든 화단에 심었고 불법투기금지 홍보문구를 부착했다. 또한 버려진 폐타이어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화단도 함께 조성해 불법투기를 예방했다.

농성1동 주민은 “화단을 만든 곳은 불법쓰레기를 투기해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는 악취와 벌레로 불쾌감을 줬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백운규 산자 “탈원전은 60년 장기 대책”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는 탈석탄·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60년 넘는 로드맵을 갖고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캠프에서 에너지 분야 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백 장관은 이날 취임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설명했다. 백 장관은 새 정부의 탈핵 로드맵에 대해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중대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공약대로 했다면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국민 합의를 끌어내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공론화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석유 등 수입하는 원료 가격에 큰 폭의 변동이 없다면 전기요금은 앞으로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잘라 말했다.

백 장관은 “전기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공급은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원료의 경우도 미국이 활발하게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 개선안

원안위 다음달 18일까지 공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8월18일까지 ‘2017년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제도개선 공모 제안’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제안은 원자력·방사선분야 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수용해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법령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제도개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eblueboy@korea.kr)을 통해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원안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9월 중 발표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물관리 일원화해야”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등 5대강 유역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풍선’ 처벌근거 생겼다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환경부는 아산화질소(N2O·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마취·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최근 유튜브주머니 대학가 주변에서 ‘해피벌룬’, ‘마약풍선’(사진) 등의 이름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는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흡입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



하여 처벌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판매·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안 숙박시설(모텔)

여름성수기 영업가능

해변가 5분
대명리조트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
(2개동 룸40개)

감정가 16억
매매가 10억

직매 010-7384-7800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 주차 완비
보 1천만, 월 70만

1억 6천 → 1억 1천용 5천)

영광 주택

급매 신축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 깨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1억 1천 → 9,800만원 (용 2천)

010-6670-9800

입찰부터 ~ 명도까지 건설개발, 리모델링 전문

(사무실) 상무지구 한국은행 맞은편

서구 풍암동 (다가구 원룸)
토지 101평, 건 223평
1층 (상가) 코너자리
월세 500 이상
▶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9억8천

동구 계림동 (어린이집)
토지 109평, 건 183평
대단위 아파트인근
▶ 감정가 5억6,700만 →
최저가 5억6,700만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지 138평, 건물 496평
(아파트입구 상가)
▶ 감정가 12억2천 → 최저가 2억2천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1층
토지 21평, 건 34평
상무역 1층 코너자리
월세 500만
▶ 감정가 16억 → 최저가 7억2천

062-527-76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구분 상가 (소액) 물건 추천

- 북구 신안동 (10층 중 3층 상가)
토지 13평, 건 34평 (실용수), 월수익 100만원
▶ 감정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 동구 신수동 (다가구 원룸동)
토지 83평, 건물 145평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5천
- 서구 쌍촌동 (주택)
토지 167평, 건 86평 (토지시세 약 400만)
▶ 감정가 4억9천 → 4억9천
- 광산구 정덕동 (7층 중 2층 상가)
건 40평, 수완지구 대방노블랜드 후문(코너)
음식점 프랜차이즈 시설완비, 권리금 없음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2억2천만
- 북구 양산동 (아파트상가)
토지 25평, 건 14평
▶ 감정가 6천6백 → 최저가 6천6백
- 용봉동 근린상가 (굿모닝타운)
토지 21평, 건 99평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6억5천

※ 반값경매, 특수물건, NPL(다수있음) ※

010-6670-9800

경매교육 (기초반)

▶ 매주 월요일 (10시 30분)
경매기초부터 ~ 입찰까지

경매교육 (실전,투자반)

실전 교육되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텝강의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직원모집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현대아파트 사이)

아파트경매물건 추천

▶ 서구 상무지구 상무버들주공 (분양면적 24평)
감정가 1억6,300만 → 최저가 1억1천4백

▶ 서구 금호동 쌍용예가 (분양면적 50평)
감정가 4억8,700만 → 최저가 1억4천

▶ 광산구 산월동 첨단 호반리젠시빌 (분양면적 35평)
감정가 2억9백 → 최저가 2억9백